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5. 3. 28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 (No. 445)

#### 유럽

- **獨, 테러 우려에 호신용품 수요 급증(KBS)**
  - 3.20 언론은 최근 독일에서 종교시설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등으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스총이나 공포탄, 전기 충격기 등 호신용 제품 수요와 소형 무기 허가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
    - ※ 독일에서는 18세 이상이면 호신용 공포탄이나 가스총을 구매할 수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려면 소형 무기 허가증이 필요
- **英, 학교 총기난사 계획·가족 살해 19세 최소 49년 징역형(연합뉴스)**
  - 3.20 언론은 영국에서 학교 총기 난사를 계획하고 가족 3명을 살해한 10대 청년이 최소 49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며, 同人은 악명을 떨치려는 야욕을 가지고 21세기 가장 유명한 학교 총기난사범이 되고자 했다고 보도
    - ※ 同人은 지난해 9월 어머니와 두명의 동생을 엽총과 흉기로 살해하고 근처 초등 학교를 찾아가 4~5세 어린이 학급과 교사 2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부인

#### 미주

- **美 법무장관, 테슬라 공격 '테러'로 강력대응 천명(연합뉴스)**
  - 3.20 언론은 美 법무부 장관이 최근 美 곳곳에서 테슬라를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자 18일 성명을 내고 “테슬라 자산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은 국내 테러와 다름없다”며 트럼프에 이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고 보도
    - ※ 또한, 기자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“테슬라 매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‘국내 테러리스트’로 분류해야 하느냐”고 질문하자 “그렇게 할 것”이라고 답했다고 부인
- **美, 테슬라 공격 대응 관련 FBI 전담반 편성(KBS)**
  - 3.25 언론은 美 연방수사국(FBI)이 지난 21일 테슬라와 충전소에 화염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한 용의자(3명)를 기소한 이후에도 급증하고 있는 테슬라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전담반을 편성·운영할 예정이라고 보도
    - ※ FBI 국장(캐시 파텔)은 “테슬라를 향한 공격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단속하고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일환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였다”고 부인

## 아 테

- **韓, 부산항대교서 대테러 통합 대응훈련**(연합뉴스)
  - 3.20 언론은 부산항대교 하부 관리구간에서 '2025 자유의 방패' 연습의 하나로 테러 대비 다중이용시설 통합 훈련이 진행되었다며 테러범이 침투, 폭발물 설치를 가정한 이번 훈련에는 53사단 등 4개 유관기관 50여명이 참여했다 보도
    - ※ 3.10일~20까지 시행된 '자유의 방패' 기간 드론에 의한 원전,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테러 시도, 다중이용시설 폭발 및 화재 등 복합 테러 상황에 대한 훈련이 진행됐다 부언
- **日, 음진리교 사린테러 발생 30주년 추도 행사**(연합뉴스)
  - 3.20 언론은 도쿄 지하철에서 음진리교가 저지른 사린가스 테러발생 30년을 맞아 가스미가세키역에서 추도 행사가 열렸으며,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흉악범죄의 기록을 공유해 다음 세대에 전승해야 한다고 보도
    - ※ 同단체는 '95.3.20 오전 08:00 3개 지하철 노선 5개 차량에 사린가스를 뿌려 14명이 숨지고 약 6,300명이 부상당했으며, 이로 인해 교주를 포함한 13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부언
- **제주경찰청·대한항공, '제주공항 불법 행위 예방' MOU 체결**(연합뉴스)
  - 3.25 언론은 제주경찰청과 대한항공이 제주공항 內 불법 행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△공항 안전 및 공공 질서 확립 △외국인 범죄 예방 홍보 활동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고 보도
    - ※ 또한, 제주경찰청은 특공대 테러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부언

## 아프리카

- **니제르, 아프리카 니제르서 IS 분파 테러...44명 사망**(연합뉴스)
  - 3.23 언론은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ISGS가 이슬람 사원의 신도들을 공격해 최소 44명이 숨졌다고 보도
    - ※ 同단체는 말리·부르키나파소와 접경지역인 남서부 코코루 마을의 모스크를 포위하고 예배중인 무슬림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보도
    - ※ 同지역에서는 IS·알카에다 등 급진 이슬람 테러조직과 연계된 무장세력이 10년넘게 유혈 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니제르군은 최근 ISGS 조직원 45명을 사살했었다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 Weekly Terrorism Trends (No. 445)

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 테러

- '24.3.22 러시아 모스크바 '크로커스 시티홀' 공연장에 무장 괴한들이 난입, 총기 난사 후 방화하여 696명(145명 사망)의 사상자 발생
    - 러 연방보안국은 테러 핵심 용의자(4명)를 포함한 사건관련자 11명 체포
    - ※ 2004년 "베슬란 학교 인질사건" 이후 러시아에서 최대 인명피해 낸 사건
  - 사건 직후, ISIS 아프간 지부인 ISIS-호라산(ISIS-K)은 '러시아의 무슬림 탄압을 이유로 공격을 주도했다며 공격영상 공개와 함께 테러의 배후를 자처
    - ※ 美 反테러 연구기관 대테러 분석가는 "ISIS-K는 지난 2년간 러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해왔고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선전전을 펼쳐 왔다"고 지적
  - 「푸틴」 대통령은 24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 후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으나, 「젤렌스키」 대통령은 '同 테러와 무관하다'며 의혹 일축
  - 한편, 미국은 '同 테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ISIS에 있으며, 이달 초 ISIS 테러 가능성에 대해 러 정부에 정보를 공유했었다'라는 성명을 발표
- ⇒ 이번 사건은 안전요원 미배치, 비상구가 잠겨 있어 피해가 컸던 만큼 국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 실태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·첩보에 대한 공유 및 상황관리를 통한 선제적 대테러활동 필요

테러 단체

< 러시아 내 활동 테러단체 >



① 이슬람국가 호라산 지부(ISIS-K)

- (목표) 호라산 지역\*에 샤리아(이슬람 율법)로 통치되는 이슬람 神政국가 건설
- (활동수법) 도시에서는 軍警·다중운집 장소 대상 테러, 지방에서는 매복공격 등 게릴라戰 전개

② 리야드 알살리힌 순교자 여단(체첸계 무장단체)

- (목표) 체첸 독립주의, 이슬람 지하드 이념
- (활동수법) 자살테러, 인질극
- (주요테러) '04년 베슬란 학교 인질사건